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고찰(1)

—2000년, 2015년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황 해 경*

(e-mail : hhk5500@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
| 2. 민족정체성의 개념 및 재일동포의 역사와 현황 | 4. 조사결과 및 분석 |
| 2.1. 민족정체성 개념 | 4.1. 기본 속성 |
| 2.2. 재일동포 형성 역사와 현황 | 4.2. 민족적 속성 |
|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5. 결론 및 시사점 |
| 3.1. 조사방법 및 대상 | |
| 3.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 |

キーワード: 在日コリアン(Korean-Residents in Japan), 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Ethnic Identity), 大阪市(Osaka-city), ホスト社会(Host Society), 共生社会(Society of Symbiosis), 生活様式(the mode of living)

1. 들어가기

재일동포가 일본에 처음 정착해서 살아온 세월만 어느 덧 100여년이라는 한 세기가 지나갔다. 한 세기동안 재일동포들은 일본제국 시대 즉 한일강제합병 이후에는 일본국민으로서, 1945년 일본패전 후에는 조선인으로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민단계인 한국적, 조총련계인 조선적,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적(籍)으로 정착하여 살아오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동포는 100여 년 동안 일본 호스트사회의 소수민족으로 많은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일본학

한국태생의 재일동포 1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고, 재일동포 2세는 부모의 민족교육과 일본사회의 현실 안에서 차별과 편견을 몸소 느끼며 살아왔다. 재일동포의 세대가 점차 거듭나면서 재일동포 3세는 본인의 민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일본사회라는 현실에 맞추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갔다. 또한 재일동포 4세와 5세로 갈수록 지인이나 친구들의 국적이 재일동포보다는 일본인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써 일본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들은 한국 관습이나 전통 등 민족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경우와 오히려 당당하게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 민족정체성에 대한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姜在彦(1976)은 재일동포의 세대교체에 주목해 재일동포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福岡泰則(1993)는 재일동포 젊은이들 3세 이후의 조사에서 크게 2개로 나뉘서 민족의식을 완고하게 유지하려는 유형과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해 가는 유형으로 나타냈다. 그것을 더 세분화하여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 「동포지향」으로 재일동포 젊은 세대들의 민족정체성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황혜경(2006)의 연구에서는 호스트(주류)사회에 따른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표출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황혜경 2009). 이러한 일본사회의 영향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키며, 민족정체성에 관한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한국태생에서 일본태생으로 재일동포세대가 거듭날수록 재일동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재일동포 민족성의 유형에도 어떤 한 요소가 아닌 동시에 두 개 세 개 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 지표로 외적요소인 국적과 이름, 한국어 사용 여부 등이 대표적이었지만, 세대가 거듭난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내적요소인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민족에 대한 자부심 등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조사연구(황혜경 2002a 2002b) 결과와 15년이 지난 현시점(2015년 실시)에서의 재일

동포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결과의 일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두 조사의 연구결과 비교를 통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변화와 재일동포 자신의 변화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단, 2000년 조사와 2015년 조사의 양이 방대함으로 본 연구는 재일동포의 식문화, 일상식과 행사식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에 관해서 2000년도 조사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제사, 결혼식 방식, 명절 지내는 방식, 설날, 민족교육 등의 비교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두었음을 밝힌다.

2. 민족정체성의 개념 및 재일동포 역사와 현황

2.1. 민족정체성 개념

에스니시티의 개념과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에스니시티 개념의 핵심이 되는 것이 민족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니시티 연구 초기에는 객관적 요인(Isajiw, W.W. 1979)이 중시되었지만 현재는 심리적·주관적 요인(Barth, F. 1969, 綾部 1985, 梶田 1996)이 중시되어, 에스니시티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객관적 측면에서 본 이론과 주관적 측면에서 본 이론의 두 개를 절충하자(Cohen, R. 1978)는 이론이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민족적 특성 또는 소속의식을 가리킨다. 민족정체성 역사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 특성이라는 측면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의 주관적 민족의식 측면과 두 개를 절충해서 보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데이비스(Davis)에 의하면¹⁾ 민족정체성은 자기집단의 문화를 자기집단기준의 판단에 의해 그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집단을 타 집단과 구별하려는 감정으로 보고 있다. 이 정의를 토대로 에부치(江淵 1982)는 민족정체성의 성립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족정체성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성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집단의 구성원은 혈연적·문화적·사회적으로 같은 뿌리의 특징을 공유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이 동족의식에 의해서 그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집단의 일원이라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1) 江淵一公(1982) 「日系アメリカ人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考察」, 綾部恒雄編 『アメリカ民族文化の研究』 弘文堂, p.142 참조.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파이서(Spicer)²⁾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의 본질적 특징은 개개인이 속한 민족의 상징과의 인격적 일체감이다. 특정의 민족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은 출생에 의해서 귀속적지위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집단과 타 집단의 구별이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호시노(星野 1985)는 민족정체성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민족 집단의 귀속의식은 시간과 장소에 항상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민족정체성은 동일한 전통적인 문화·생활양식을 갖는 집단이 동일한 귀속의식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집단과 타 집단을 구별하는 감정으로 정의한다³⁾.

2.2. 재일동포 형성 역사와 현황⁴⁾

2.2.1. 해방 이전의 역사와 현황

재일동포 형성 과정에 관해서 朴在一(1979)과 杉原達(1991)의 연구에 근거해 도항 현황을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표1참조).

표 3 해방이전의 재일동포 형성 역사

시기 구분	일제강점기 이전	일제강점기			
		유치기		억제기	강제징용기
시기	~1909년	전기 1910 ~ 19	후기 1920 ~ 25	1926 ~ 38	1939 ~ 45
특징	거주불인정	한일 합병	산미증식계획	만주 사변	국가총동원법

* 표는 朴在一(1979)과 杉原達(1991)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작성.

첫 번째 시기 (1909년 이전)는 한일합병 이전으로 조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 거주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2) 江溯一公(1982), 앞의 책 참조.

3) 본 논문 전개상 필요한 내용으로 황혜경(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65,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295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필함.

4) 황혜경(2015), 앞의 책 pp.295-296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필함.

두 번째 시기 (1910-25년, 유치기)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된다. 전기 (1910-19년)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은 자유롭게 되어 주로 일본 기업이 조선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1919년까지 거주 인구는 3만 6천명이고, 남성 혼자서의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후기 (1920-25년)가 되면 일본의 식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제1차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촌사회가 파괴화 되어 농촌 인구의 이주가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1925년에 18만 7천명에 이른다.

세 번째 시기 (1926-38년, 억제기)는 1926년부터 제2차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농가에서 더욱 살기 힘들게 되어,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억제하려 하였으나, 1931년 만주사변 등의 격변으로 국가총동원법 시행직전까지 거주인구의 변화는 1930년 약 41만 명에서 1938년 약 88만 명으로 급증했다.

네 번째 시기 (1939-45년, 강제징용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및 1939년 국민징용령을 받아 이른바 강제연행이 열린 시기로 거주인구의 연평균 증가수는 2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1945년에는 약 210만 명에 이른다.

2.2.2. 해방 이후의 역사 및 현황

1945년 일본의 패전당시 재일동포는 약 210만 명에 달했다. 그 중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국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남은 사람도 많았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재일동포는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역사적인 특수 조건을 무시하고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 약 반세기 살았던 재일동포와 그 자손은 위상이 변하고 외국인으로 처우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각종 제도적 제한, 차별이 생겨났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참정권 문제·고용·생활 등의 차별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일동포는 차별에 저항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방 이후의 인구는 60만 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최근 더 감소하여 현재는 50만 명 정도이다(2015년 한국·조선적 기준).

표2 재일동포 인구

	2009	2011	2013	2015	(%)
총인구	912,655	913,097	893,129	855,725	100
귀화자	320,657	334,962	346,199	355,274	41.52
한국·조선적	591,998	578,135	546,930	500,451	58.48

재일동포귀화자:1952-2014년 일본 법무성 통계를 기반으로 한 추산치(조선적포함)
출처: 재외동포연구재단 통계자료실 참조

표2와 같이 재일동포 총인구는 2009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귀화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비율로 보면 한국·조선적이 58%, 일본귀화자가 42%로 일본귀화자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오사카는 재일동포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2015년 기준 현재 15만 4천 명 정도로 재일동포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⁵⁾. 그 중에서도 오사카시 이쿠노구지역만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인구의 약 40%가 밀집되어 있다.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3.1. 조사방법 및 대상

본 조사는 2000년도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에 관한 조사(황혜경, 2002a 2002b)⁶⁾와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설문지로 재차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으로 재일동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일본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 세대별로 식문화와 민족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조사방법은 오사카시 大阪市立御幸森초등학교, 大阪市立中川초등학교, 大阪市立舍利寺초등학교, 大阪市立小路초등학교, 建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학부모, 이쿠노센터에 방문하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

5) 재외동포연구재단 통계자료실 참조, <http://research.korean.net/Board?n=reference>.

6) 이 조사는 2000년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이루어진 조사로 建国학교, 大阪市立中川초등학교, 大阪조선학교 등의 학부모들과 오사카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유효 설문지 705부를 회수했음.

했다. 그 결과 총 269부를 회수했고, 그 중 뉴커머 46명을 제외하고 223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확보했다.

3.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속성과 민족적 속성으로 나누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속성으로 연령, 성별, 재일해당세대, 출신지, 가족구성, 국적을 조사했다. 민족적 속성으로 평상시 음식 선호도, 가정 내 한국음식 섭취빈도, 가정 내 요리 방식, 가정 내 김치 섭취빈도, 가정 내 김치 수급 상황, 피로연 음식, 행사식·일상식 재료 구입 장소 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했다.

분석방법으로 회수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응표본t-검정에 의해서 2000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4.1. 기본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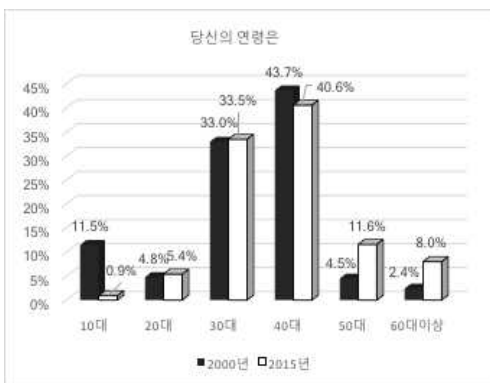


그림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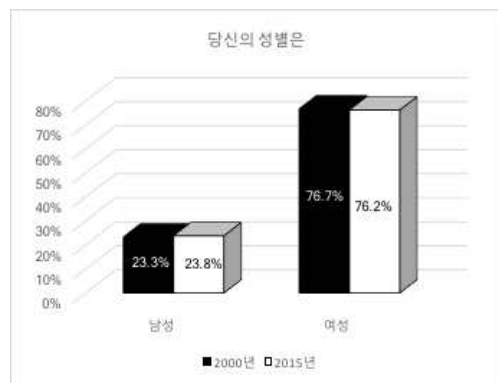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기본속성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1과 같이 대상자의 연령은 2000년도에 「40대」가 43.7%, 「30대」가 33.0%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순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도 조사에서도 「40대」가 40.6%, 「30대」가

33.5%를 차지했다. 비교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로 적합했다.

성별에 있어서는 2000년 조사와 2015년 조사 모두 「여성」이 76% 정도, 「남성」이 23% 정도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여 민족성 분석을 위한 비교 분석으로 적합했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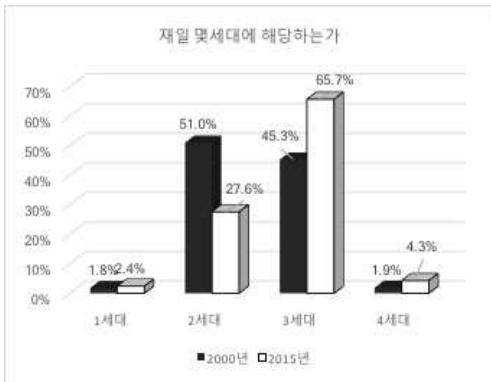


그림 3 재일 해당세대

자 연령비율이 비슷하나 15년 이후의 조사로 세대 중심이 2세대에서 3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각 가정의 재일동포 1세대의 출신지를 조사해 본 결과, 그림4와 같이 2000년도에는 「제주도」가 6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상도」로 28.8%를 차지했다. 2015년 조사에서도 2000년 조사와 같은 결과로 나온 것은 오사카 형성과정⁷⁾에서 알 수 있듯이 1923년 2월 제주-오사카 간 직통항로 개시에 의해서 건너온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사카시는 제주도 출신이 약60%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가 28% 정도를 차지했다. 재일동포 출신지에 있어서는 2000년도 조사대상자와

다음은 조사대상자가 재일 몇 세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았다. 1세대가 일본에 처음 건너가 정착한 후, 본인은 재일 몇 세대에 해당 하는가로 2000년 조사에서는 「2세대」가 5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대」가 45.3% 순으로 많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3세대」가 6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세대」가 27.6%로 많았다. 2000년도 조사와 2015년 조사를 비교했을 때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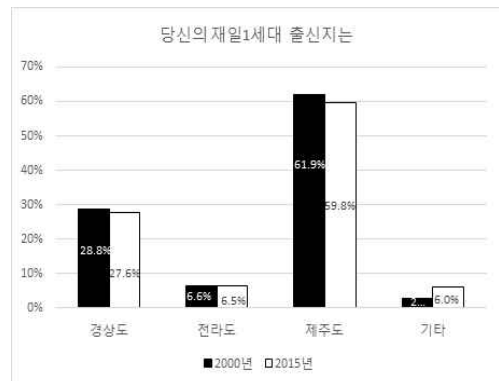


그림 4 재일 1세대 출신지

7) 황혜경(2010) 「재일코리아에 있어서 민족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74-475참조.

2015년도 조사대상자의 차이는 없었으며, 민족적 속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본속성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대가족보다는 핵가족화 되어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일동포의 가족구성은 어떠한지 조사해 본 결과, 가정의 가족구성을 보면 2000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도 「핵가족」이 거의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5).

조사대상자의 국적⁸⁾을 그림6과 같이 보면 2000년도에는 한국적이 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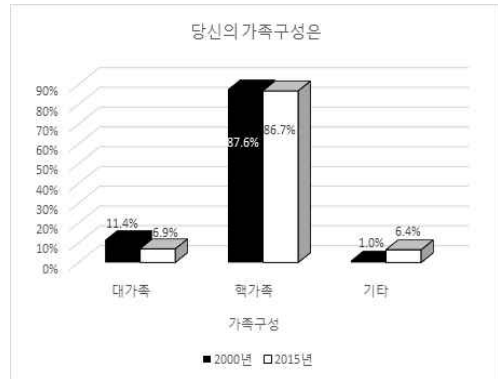


그림 5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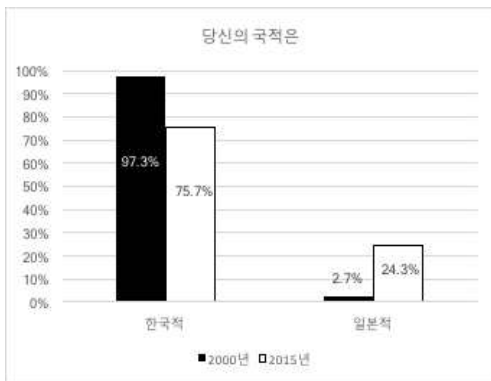


그림 6 국적

에 비해 일본적 대상자가 많았다. 그것은 표1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점점 귀화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번 조사는 3세대가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속성으로 연령, 성별, 국적, 재일해당세대, 출신지, 가족구성을 조사해 보았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일종의 전형조사였으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도 조

사와 15년이 지난 2015년도 조사의 변화를 보기 위한 기본속성에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이 거의 동일하여 15년 전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8) 2000년도 한국적에는 97.3% 중 조선적이 37.7%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2000년도 조사한 지역과 부근과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조선학교 방문이 어려웠던 관계로 조선적이 배제되었다. 2000년도 조사에서의 결과가 조선적을 뺀 결과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4.2. 민족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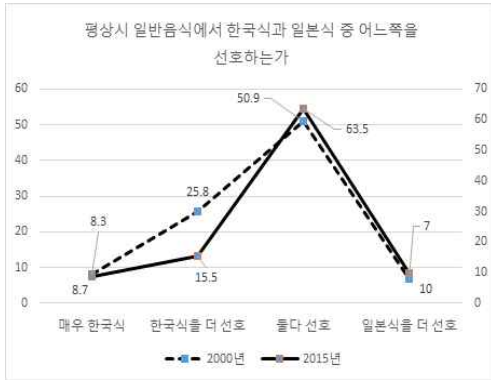


그림 7 평상시 음식선호도

화를 보면 「둘 다 선호」가 가장 많긴 했지만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13%p가 증가했고, 한국식은 10%p 정도 감소, 일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했을 수 있다.

재일동포의 가정 내 식문화에 관한 문제로 그림8에서 가정 내 한국 음식 섭취빈도를 보도록 한다. 그 결과 2000년도에는 「자주」가 50.9%로 가장 많았고, 「가끔」이 45.4%로 많았다. 이 둘을 합치면 약 96%의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2015년도에는 2000년도와 다르게 「가끔」이 55%로 가장 많았고, 「자주」가 32.7%로 많이 감소했다. 한편 「가끔」이 55%로 많이 증가했으며 「거의 섭취 안함」도 3.7%에서 12.3%로 거의 8%p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대응표본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351, p<.001$). 이 결과 가정 내 한국음식 섭취빈도가 감소하고 있고, 섭취를 안 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다음은 가정 내 요리방식을 보도록 한다. 그림9와 같이 2000년도에는 「한국식+일본식」이 거의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식에 가까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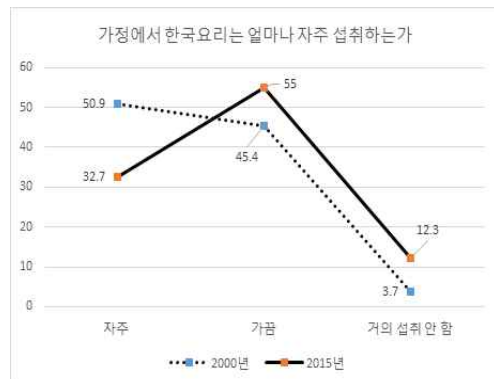


그림 8 가정 내 한국음식 섭취빈도

본식에 가까움」 「매우 한국식」의 순이었다. 한편 2015년도에는 「한국식+일본식」 거의 47%로 가장 많았으나, 2000년도에 비하면 13%p 감소했고, 다음으로 「일본식에 가까움」이 10.7%에서 33.2%로 20%p 이상 급증했고 「한국식에 가까움」이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909, p<.01$). 재일동포 가정 내의



그림 9 가정 내 요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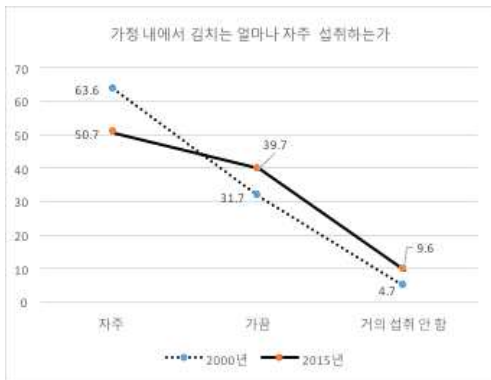


그림 10 가정 내 김치 섭취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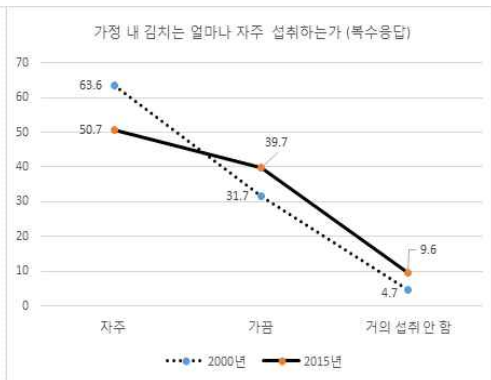


그림 11 가정 내 김치 수급상황

요리방법이 일본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가정에서의 김치 섭취도를 그림10에서 보면 2000년도에는 「자주」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끔」순으로 둘 다 합치면 95%이상이 섭취하고 있었다. 2015년도에서는 「자주」가 50.7%로 가장 많았으나 2000년도에 비하면 13%p 정도 감소했고, 「가끔」이 8%p 증가, 「거의 섭취 안함」이 5%p 정도 증가하였다. 재일동포 가정 내에서 지금도 90%이상 김치는 섭취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 비하면 감소되어 10%정도는 거의 섭취 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지금도 상당수가 가정에서 김치를 섭취하는데 김치를 어떻게 수급해서 섭취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1과 같이 2000년도에는 「김치전문점」에서 구

입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인에게 받는다」와 「집에서 담근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 김치전문점에서 구입이 6%p 정도 더 증가했고, 지인에게 받는 것이 대폭 감소했고, 집에서 담그는 비율도 5%p 정도 감소했다.

다음은 한국의 관혼상제 중 하나인 결혼식 양식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 한국의 관혼상제는 예전부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개념이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은 일생의 중요한 행사로 하객으로 가족 친척 뿐만 아니라, 친구, 회사동료, 지인 등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준다. 하객이 많을수록 사회에서의 지위나 명성 등의 사회관계가 좋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보통은 200명에서 많으면 500명도 참가한다.

그림12에서 보면 결혼식으로 2000년도에는 「한국·조선식」과 「한국·조선식+일본식」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이 어느 정도 전해져 내려온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반면, 2015년도에는 「한국·조선식」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식」과 「서양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현상은 일본인의 일반적인 결혼양식인 일본식과 서양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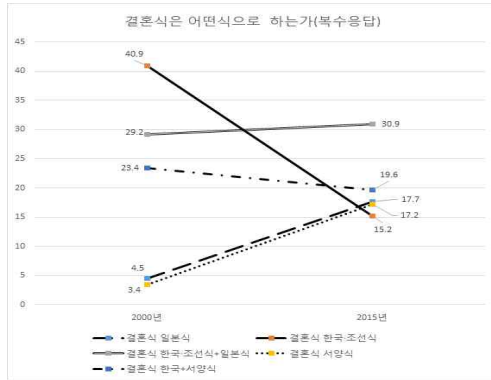


그림 12 결혼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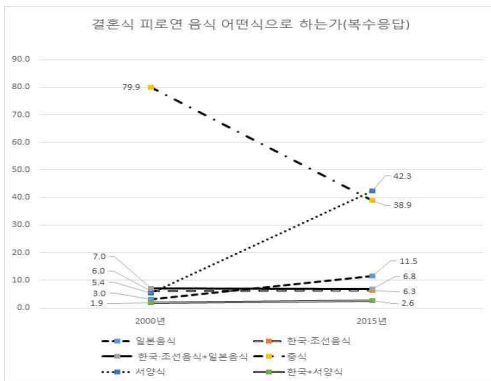


그림 13 피로연 음식

다음은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피로연 음식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 그림 13과 같이 2000년도에는 「중식」이 거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5년도에는 「서양식」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식」이 39.9%로 많았고, 「일본음식」이 11.5%로 많았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에 중식이 많았던 이유는 중화요리점 특성상 결혼식이 끝나고 곧

바로 피로연 장소로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장소가 넓어서 많은 하객을 수용할 수 있고, 시간상 여유롭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다. 피로연은 신랑과 신부의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하객이 많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일본사람들의 결혼풍습인 가족과 친척 30여명 정도만 초대하는 결혼식과는 차이가 있다. 2000년도 조사에서의 재일동포 피로연 하면 한국·조선식 결혼식에 뷔페식당인 중식이 대부분이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중식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서양식이 대폭 상승, 일본식도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재일동포의 결혼식 양식과도 관련이 있으며, 점차 일본 결혼식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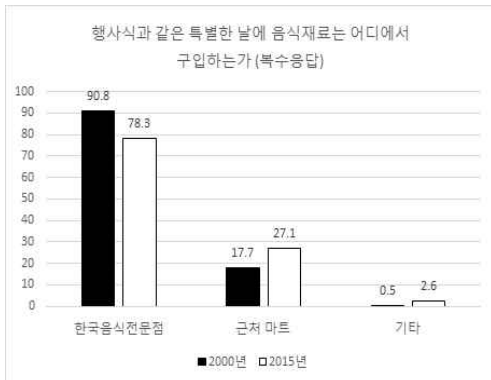


그림 14 행사식 음식재료 구입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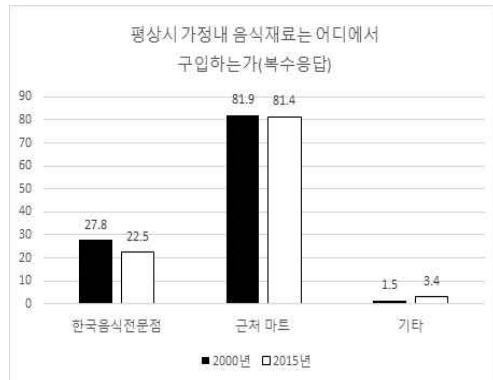


그림 15 일상식 음식재료 구입장소

재일동포들의 한국 전통행사로 설·추석·제사를 들 수 있다. 이 날 한국식으로 지내는 가정에서는 재료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음식전문점」을 이용한다. 재일동포 80%이상이 제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림14와 같이 행사식 재료구입 장소를 200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한국음식전문점」 이용이 많으나, 2015년도에 이용이 좀 줄었으며, 「근처마트」 이용이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제사 참석의 감소와 행사식에서 한국음식 이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식 재료구입 장소를 200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근처마트」를 이용하며 그 비율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한국음식전문점」에서는 2015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그림15). 이것은 그림8의 가정 내 한국음식 섭취빈

도와 그림9의 가정 내 요리방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음식 섭취도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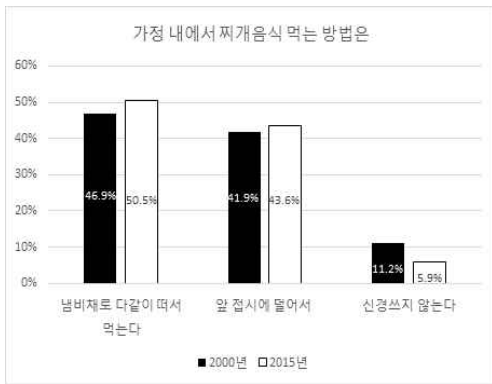


그림 16 찌개음식 먹는 방식

식습관에 관한 문제로 찌개음식 먹는 방식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그림 16). 2000년도에는 한국식인 「남비채로 다 같이 떠서 먹는다」가 47%로 가장 많았고, 일본식인 「앞 접시에 덜어서」가 42%로 거의 반반으로 많았다. 2015년도에는 「남비채로 다 같이 떠서 먹는다」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앞 접시에 덜어서」가 약44%로, 2000년도와 비교해서 각각 좀 더 증가했으며 「신경 쓰지 않

는다」가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젓가락 놓는 방식에 관해서 岡田鉄編(1998)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가로로 놓으나, 중국에서는 세로로 놓는다. 한편, 한국에서는 확실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습관적으로 세로로 놓는다(황혜경 2001).

그러면 재일동포의 젓가락 놓는 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보려 한다. 그림 17과 같이 2000년도에는 일본식인 「가로」가 거의 60%였으나, 2015년도에는 8%p 정도 증가하였고, 한국식인 「세로」는 두 기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신경 안 쓴다」가 29.6%에서 22.7%로 감소했다. 젓가락 놓는 방식에서도 더 일본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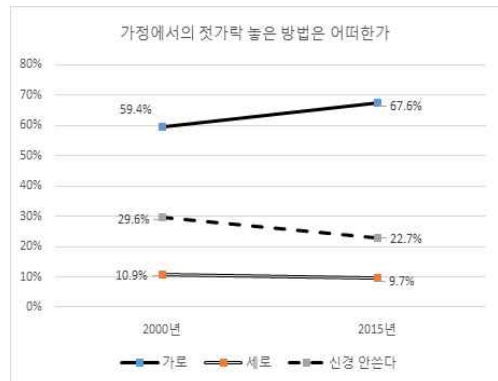


그림 17 젓가락 놓는 방식

다음은 재일동포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그림 18과 같이 「한국·조선음식은 마음의 고향을 느끼는가」에 200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가 37.3%에서 29.8%로 약8%p 정도 감소했고, 「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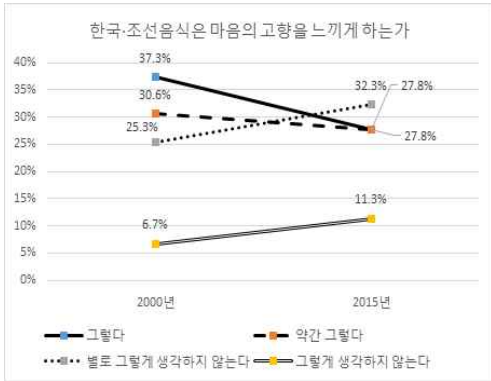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조선음식은 마음의 고향
요하게 생각 하는가」에서 2000년도와
47.2%에서 18.3%로 거의 20%p가 급
격히 감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16.2%에서 41.8%로 거의
25%p가 급증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까지 합
치면 거의 30%p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대응표본t-검
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4.382, p<.001$). 15년 전인 2000년
도 조사와 비교해 지금은 재일동포
반 정도가 민족적 생활양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일동포 3세, 4세가 주류인 현재의 재일동포사회는 재일동포 1세와는 달리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모세대
인 재일동포 1세의 강한 영향을 받고 성장한 재일동포 2세와는 달리 재일동포
3세, 4세는 부모세대의 영향이 재일동포 2세보다는 약했다는 것이다. 그림18의
한국·조선음식은 마음의 고향을 느끼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감안해야 할 점은
마음의 고향은 어디까지나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25.3%에
서 28.8%로 3%p 증가했으며, 「그렇
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6.7%에서
12.6%로 6%p 증가했다. 「별로 그
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와 「그렇게 생
각하지 않는다」를 합쳐서 보면 거의
10%p 증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
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
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문제로 그
림19와 같이 「민족적 생활양식을 중
요하게 생각 하는가」에서 200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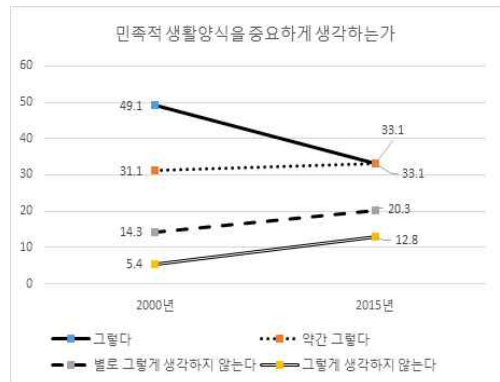


그림 19 민족적 생활양식

이상의 장소라는 점이다. 또한 그림19의 민족적 생활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림18의 한국·조선음식은 마음의 고향을 느끼는가에서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증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상의 장소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좁혀져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실항민이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식세대, 손주세대로 거듭할수록 그 고향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한편, 그림19의 민족적 생활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서 「그렇다」가 현저하게 감소현상을 보이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현저하게 상승현상을 보인 것은 일본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일본생활양식에 익숙해지는 재일동포 3세, 4세가 민족적 생활양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민족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봐야할 것인가.

종합해 보면, 음식을 중심으로 한 이상의 장소인 고향에 대한 의식은 점점 약화되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의식의 차이는 좁혀지고, 현실에 입각한 민족적 생활양식에 대한 중요성 여부 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으로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조사연구(황혜경 2002a, 2002b) 결과와 15년이 지난 현시점(2015년 실시)에서의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결과의 일부를 비교분석하여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속성은 2000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를 비교하기에 적합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족적 속성으로 평상시 음식선호도에 있어서 한국식은 감소한 것에 반해서 한국식 일본식 둘 다 선호하는 재일동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피로연 음식에 있어서도 2000년도에는 한국·조선식의 결혼양식의 영향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식이 많았으나, 2015년도에는 일본에

서 일반적인 결혼양식인 일본식과 서양식이 많이 증가하였고, 피로연 식사로는 서양식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가정 내 한국음식 섭취빈도와 가정 내 요리방식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한국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비율이 줄었고, 거의 섭취 안하는 가정도 늘었다. 가정 내 요리에서도 한국식에 가까움이 감소했으며, 2000년에 가장 많았던 한국식과 일본식이 섞여 있음 또한 감소했고, 일본식에 가까움이 급증했다. 가정 내 김치 섭취빈도는 2000년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자주 섭취한다」가 2015년에는 감소했으며, 「거의 섭취 안함」이 조금 증가했다. 식사 습관 중 하나인 젓가락 놓는 방식에서도 일본식인 가로로 놓는 것이 증가했으며 한국식인 세로로 놓는 것이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에 관한 인식문제로 「민족적 생활양식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전체적인 항목에 있어서 2000년도와 비교할 때, 일본사회에 적응하고 한국문화, 한국풍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서 더 주목되는 것은 「민족적 생활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결과가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일동포사회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민족정체성이 약화된다고 봐야 할 것인가?

필자는 본 연구결과로부터 현시점에서 재일동포 민족정체성을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다음 두 가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재일동포사회의 세대 변화이다. 2000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출신지, 가족구성원에 있어서 거의 흡사하게 조사가 되었다.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2000년도에는 중심세대가 1세, 2세였다면 2015년도에는 중심세대가 3세, 4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재일동포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민족정체성에 대한 기준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호스트 사회 즉, 일본사회와 재일동포사회와의 관계이다. 재일동포사회가 표면적 공생사회 환경에 처해있을 때와 실질적 공생사회로 차별과 억압이 아닌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을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 조사에서는 재일동포 1세, 2세가 중심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재일동포 3세, 4세가 중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0년도 조사는 표면적 공생사회 환경(=억압적 환경)에서의 결과였으며, 2015년도 조사는 2000년 때 보다는 실질적 공생사회로 좀 더 다가선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라경수(2010)의 재일동포 역사를 보면, 억압→무관심→차별→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하고 있다. 식민지시대는 억압의 대상이었고, 해방직후에는 전후처리 문제에서 국적박탈까지 당하는 무관심대상, 1970년대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민족적 차별의 대상, 현재는 다문화주의를 위한 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의해서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같이 재일동포사회는 억압적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차별과 억압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공생사회로 일 때, 한류 붐과 같은 문화의 영향,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정책 등이 재일동포사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 1세대에서 재일 3세대 4세대로 갈수록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기준이 다양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귀화자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없어서가 아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국적으로 바꾼 귀화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외적요소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맞는 민족정체성의 판단이 요구 된다. 즉, 민족정체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의 앞으로 더욱더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본 논문은 2000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의 양이 방대함으로 본 연구는 재일동포의 식문화, 일상식과 행사식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2000년도 조사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다음 논문에서는 제사, 결혼식 방식, 명절 지내는 방식, 민족교육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재일동포 민족정체성의 유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 양케이트조사에 협력해주신 이쿠노센터 오광현선생님, 大阪市立御幸森초등학교 홍우공선생님, 大阪市立中川초등학교 강지자선생님, 大阪市立舍利寺초등학교 양천하자선생님, 大阪市立小路초등학교 김하옥선생님, 建国학교 김향승선생님, 재일동포 학부모님, 테이서비스 사랑방 정귀미선생님을 비롯한 조사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라경수(2010)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재일코리안-‘공생’과 ‘동포’의 사이」 『재외한인연구』 22, 재외한인학회, p. 90.
- 황혜경(2009) 「일본사회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연령별 분석」 『일본문화학보』 42,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8-289.
- _____ (2010)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71-492.
- _____ (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65,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311.
- 綾部恒雄(1985) 「エスニシティの概念と定義」 綾部恒雄編 『文化人類学Ⅱ』 アカデミア出版会, pp.8-19.
- 江溯一公(1982) 「日系アメリカ人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考察」 綾部恒雄編 『アメリカ民族文化の研究』 弘文堂, pp.139-199.
- 梶田孝道編(1996) 『国際社会学(第2版)-国家を超える現像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姜在彦(1976) 「在日朝鮮人の六十五年」 『季刊三千里』 第8号, pp.22-37.
- 杉原達(1991) 「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朝鮮・済州島との関連-」 杉原薫他編 『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論, pp.215-248.
- 朴在一(1979) 『在日朝鮮人に関する総合調査研究』 新紀元社, pp.1-36.
- 福岡泰則(1993) 『在日韓国・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新社.
- 황혜경(2001) 「川崎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正月料理を主たる対象として-」 『日本文化学報』 10, 韓国日本文化学会, pp.204-218.
- _____ (2002a) 「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第1報)-行事食を主たる対象として-」 『日本家政学会誌』 53-7, pp.671-680.
- _____ (2002b) 「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第2報)-日常食を主たる対象として-」 『日本家政学会誌』 53-11, pp.1097-1104.
- _____ (2006)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差異-大阪市と川崎市の行事食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29, 韓国日本文化学会, pp.204-218.
- 星野命(1985) 「民族的帰属意識」 綾部恒雄編 『文化人類学Ⅱ』 アカデミア出版会 pp.34-45.
- Isajiw,w.w. (1974) "Definitions of Ethnicity", Ethnicity1(2), p.117.
- Barth,F.(1969) "Introduction: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Boston:Little Brown. pp.9-38.
- Cohen,R.(1978) "Ethnicity problem and Focu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7, pp.379-403.

논문 투고 일자 : 2016. 10. 09.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考察(1)
—2000年度と2015年度、大阪市を中心に—

黄慧瓊

本研究は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2000年度に大阪市在日コリアンを対象に一度行った調査と2015年度にもう一度同じ場所で行った調査を比較した。

その結果、全体的に2000年度と比べると、日本社会に適応し韓国の文化や習慣がすこずつなくなっていくことがわかった。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民族的生活様式を大事にしたいと思いま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そう思わないが2000年度と比べると顕著に増加している点である。そこから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が薄れていくと断定できるのであろうか。そこから2つが考えられる。1つは在日コリアン社会の世代変化である。もう一つは、ホスト社会である日本社会と在日コリアン社会との関係である。

筆者は本研究の結果から現時点で、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化という側面から真剣に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Consideration of Changes in Ethnic Identity of Korean-residents in Japan
- A Focus on the region of Osaka-city in 2000 and 2015 -

Hwang, Hye-Kyoung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survey was done once to target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Osaka in 2000 and was compared with those carried out once again in the same place in 2015.

As a result, compared with the 2000 fiscal year, South Korea's culture and customs have been changed little by little to adapt to Japanese society. Here I want to note that negative responses to the question of taking care of the ethnic lifestyle were found to increase significantly as compared with the survey of the 2000s. Will it be concluded that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residents in Japan keep on fading? Two points can be considered. One is a household chang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ese society. The other is the relationship of the host society of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t the moment, the author think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eriously from the aspect of diversification of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